

CR 2006 - 3

# 생보사 FY2006 손익 전망 및 분석

2006. 2.

보 험 개 발 원

CR 2006 - 3

CEO  
Report

**생보사 FY2006 손익 전망 및 분석**

2006. 2.

**보 험 개 발 원**

**CEO Report**는 보험산업과 관련된 현안과제를 집중분석하여, 보험회사 최고경영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드리기  
고자 작성되었습니다.

## < 목 차 >

I. 검토배경 .....	1
II. 손익 전망 .....	2
III. 그룹별 손익 전망 및 분석 .....	5
IV. 시사점 .....	10
<부록 1> 손익 민감도 분석 .....	12
<부록 2> 손익 전망 분석 흐름도(flow chart) .....	14
<부록 3> 손익 전망 주요 가정 .....	15

## I. 검토 배경

---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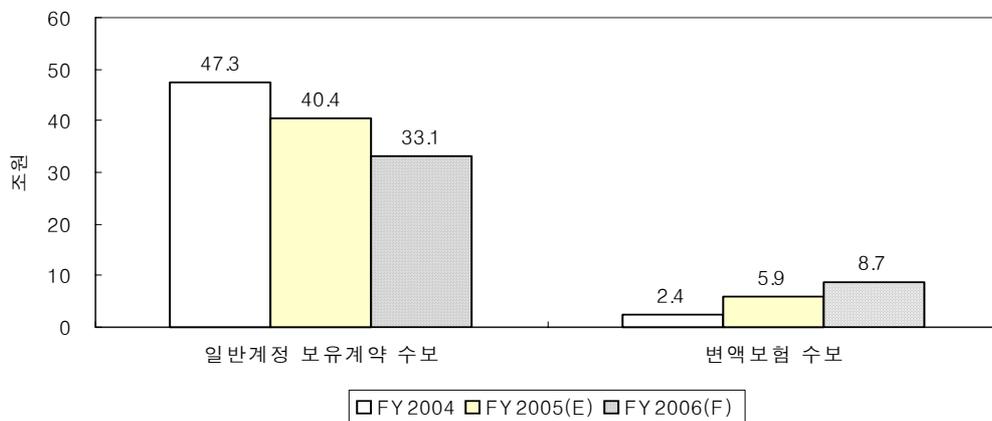
- 우리 경제는 2005년 하반기 이후 완만하게 회복국면으로 접어들었으며, 2006년에는 경기회복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
  - 고용확대, 민간소비 회복, 투자 증대 등에 힘입어 2006년도 경제성장률은 5% 수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
  
- 금융시장 역시 2005년 하반기 두 번에 걸친 정책금리 인상(10월 11일 3.25%⇒3.50%, 12월 8일 3.50%⇒3.75%)을 계기로 금리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음
  - 초저금리 현상의 완화로 인해 생보사 경영의 압박 요인이었던 이차역마진 현상이 일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어 생보 산업의 경영환경이 다소 양호해질 것으로 전망됨
  
- 본 보고서에서는 현 상황하에서 전반적인 경제여건, 금융시장 및 생명보험 산업을 둘러싼 각종 제도변경 요인을 반영하여 FY2006 생보사의 경영전망을 하고자 함
  - 1990년대 말 이후 우리 생보 산업은 재무건전성 및 리스크 관리 중심의 감독 체계 구축, 방카슈랑스 도입 등으로 인해 생보사의 경영 패러다임이 크게 변화하였음
  - 외형성장보다는 내실위주의 경영이 더 중요해짐에 따라 자사의 체력에 부합하는 비전 설정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 수립이 중요해짐
  - 전체 산업 및 회사 그룹별(상위, 중간, 하위) 경영지표를 전망, 비교·분석함으로써 개별회사의 경쟁력 제고 및 건전한 보험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

## Ⅱ. 손익 전망

### 1. 수입보험료 및 당기순이익

- 수입보험료 규모는 FY2006에는 62조원(FY2005: 57조원)으로 전망됨<sup>1)</sup>
  - 일반계정 보유계약의 수입보험료는 외환위기 이후 판매한 고금리 저축성보험의 집중적인 만기도래로 인해 7조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(FY2005: 40조원⇒FY2006: 33조원)
  - 반면, 투자형상품인 변액보험의 실적이 크게 증대하여 FY2006에는 8조 7천억원 수준(FY2005: 5조 9천억원)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

<그림 1> 일반계정 보유계약 및 변액보험 수보 전망



- FY2006의 당기순이익은 1조 5천여억원(FY2005: 1조 9천여억원<sup>2)</sup>)

- 1) 본원에서 발간한 『2006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』에서는 FY2006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규모를 66조원으로 전망한 바 있음, 본 전망과 수입보험료 규모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본 전망에서는 퇴직보험 수입보험료를 FY2004와 동일한 값(약 4조원)으로 적용한 데 기인함
- 2) 가산세환급금 2,134억원을 포함한 금액으로서 이를 제외한 FY2005

수준으로 전망되며 이월별 세전 손익은 다음과 같음

□ 이자율차손익

- 국고채(3년)수익률이 5%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FY2005~FY2006 자산운용이익률은 평균적으로 5.5% 수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,
- 책임준비금 부담금리는 금리확정형 계약의 높은 예정이율로 인해 평균 6.3% 수준으로 전망되어
- 투자부문에서는 4천억원~5천억원 정도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됨

□ 위험률차손익

- 생존급부의 비중 확대(FY2004: 55.5%)와 동 부문에서의 이익률 악화<sup>3)</sup>로 인해 세전 위험률차익 규모는 1조원 수준으로 전망됨

<표 1> 손익 관련 전망

(단위: 억원)

	FY2005(E)	FY2006(F)
당기손익	19,637*	15,707
위험률차손익	11,285	10,560
이자율차손익	-4,082	-5,190
사업비차손익	16,407	13,697
기타손익	-3,973	-3,360

주: \*는 가산세환급금 2,134억원 포함

□ 사업비차손익

- 사업비차손익은 실제신계약비 이연효과로 인해 1조 3천억

당기손익은 1조 7천여억원 수준임

3) FY2004 생존급부 부문에서의 이익률은 -2.1%로 추정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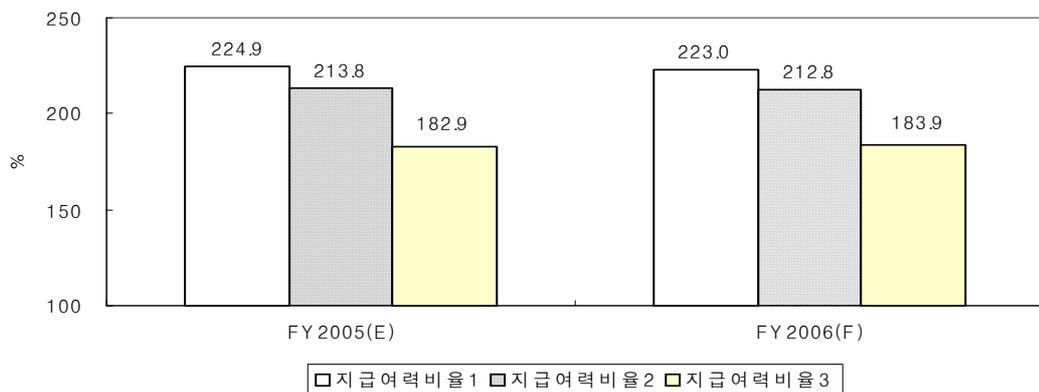
원 수준으로 전망됨

- 신계약비 부분의 이익 감소에도 불구하고, 유지비 부문과 수급비 부분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1조원 이상의 세전 사업비차익 실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

## 2. 지급여력비율

- FY2006 지급여력기준금액은 11조 7천억원, 지급여력금액은 26조 2천억원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급여력비율은 223% 수준 (FY2005: 225%)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
- 후순위채와 대손충당금을 제외한 수정지급여력비율은 213% 수준으로 전망되며, 여기에 재보험 출재를 인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184% 수준<sup>4)</sup>으로 낮아질 전망됨

<그림 2> 지급여력비율 전망



주: 지급여력비율1=지급여력금액/지급여력기준금액×100  
지급여력비율2=(지급여력금액-후순위채-대손충당금)/지급여력기준금액×100  
지급여력비율3=(지급여력금액-후순위채-대손충당금)/출재 인정하지 않은 지급여력기준금액×100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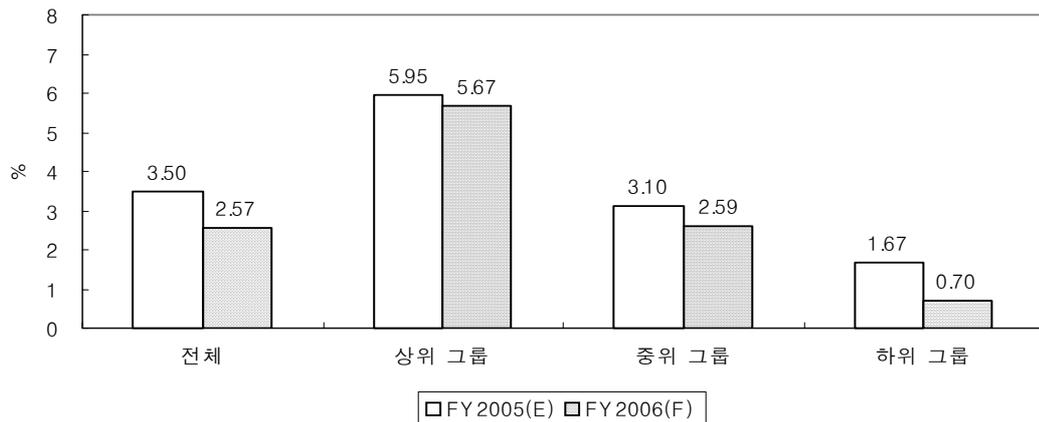
4) 2005년 9월 기준 위험보험금에 대한 생보사별 출재율은 최저 3.3%부터 최대 85.0% 수준임, 위험보험금×출재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여력기준금액에서 차감하지 않았을 경우의 지급여력비율을 의미함

### Ⅲ. 그룹별 손익 전망 및 분석

#### 1. 분석 방법

- II장 경영지표 분석시 대상이 된 22개 전 생보사 중 설립연한이 짧아 상호 비교하기 곤란한 회사를 제외한 18개사를 대상으로 함
  - FY2006 수입보험료 대비 이익률 기준으로 3개 그룹(상위 6사, 중간 6사, 하위 6사)으로 분류하고,
  - 각 그룹에 속한 회사의 경영효율성을 전망하고 그룹간 비교 분석함
- 분석 대상 18개사 『수입보험료 대비 이익률』 (당기순이익/수입보험료×100, 이하 이익률)은 2.57% 수준임<sup>5)</sup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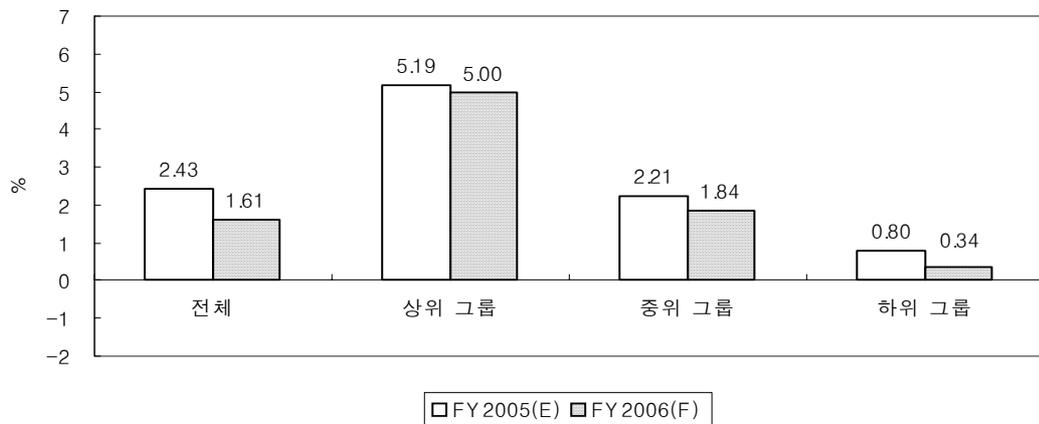
<그림 3> 수입보험료 대비 이익률



5) 22개 전생보사의 FY2006 이익률은 2.53%이며 가산세환급금을 제외할 경우 FY2005 이익률은 3.08% 수준으로 예상됨, 이는 미국 생보사(2003년 5.97%)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

- 이익률이 높은 상위 그룹은 5.67%, 보통인 중간 그룹은 2.59%, 낮은 하위 그룹은 0.70% 수준으로 예상됨
- 자본비용(지급여력기준금액×투자수익률)을 고려한 이익률((당기순이익-자본비용)/수입보험료×100)은 0.96%p 낮아져 1.61% 수준으로 예상됨
- 이익률이 높은 그룹은 5.00%, 보통인 그룹은 1.84%, 낮은 그룹은 0.34% 수준으로 예상됨
- 자본비용 고려 후 이익률 기준 상·중·하 그룹은 자본비용 고려 전 이익률 그룹과 대체로 일치함

<그림 4> 자본비용 고려 후 이익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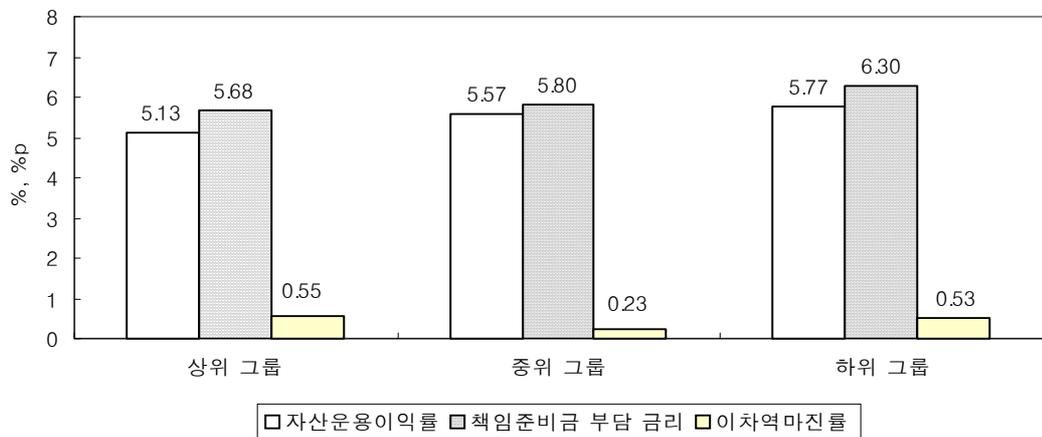


## 2. 투자 관련 효율성

- 이익률이 높은 그룹과 낮은 그룹간 이차역마진률 차이는 매우 미미할 것으로 예상됨
- 이익률 상위 그룹의 이차역마진율은 0.55%p인 반면, 낮은 그룹은 0.53%p 수준으로 전망되어 상위 그룹의 이차역마진률이 하위 그룹보다 소폭 높음

- 이익률 상위 그룹의 책임준비금 부담금리는 5.68%인 반면, 하위 그룹은 6.30% 수준으로 전망되어 이익률이 낮은 그룹이 높은 그룹보다 부담금리가 0.62%p 높음
- 부담금리가 높은 그룹은 공격적인 투자 전략을 구사함으로써 자산운용이익률이 5.77%로 높은 반면, 부담금리가 낮은 그룹은 5.13% 수준이어서, 이익률이 낮은 그룹이 높은 그룹보다 자산운용이익률이 0.64%p 높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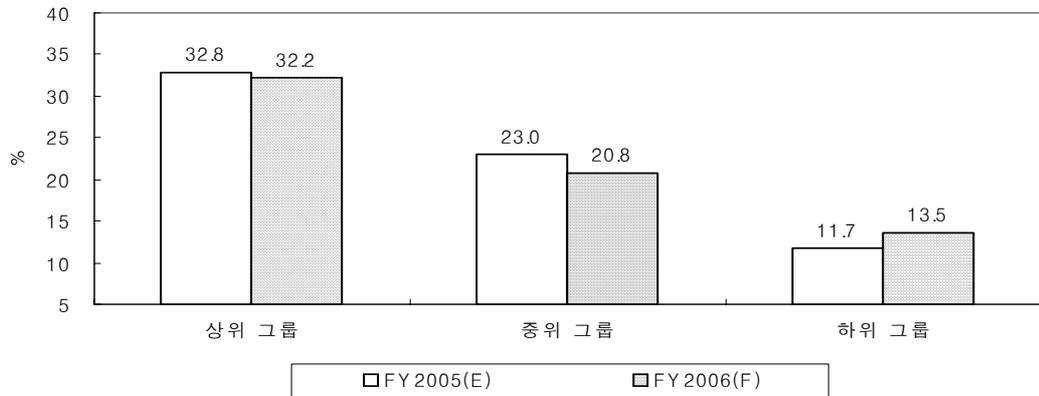
<그림 5> 이차역마진률 전망(FY2006)



### 3. 위험률차의 관련 효율성

- 투자 부문과 달리 위험률차익률(위험률차익/위험보험료×100)은 회사별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전망됨
  - 이익률 상위 그룹의 위험률차익률은 32.2%, 보통인 그룹은 20.8%, 하위 그룹은 13.5% 수준으로 전망되어 이익률이 높은 그룹이 위험률차익률도 높게 나타남
  - 이를 통해 상품의 급부설계, 가격설정, 언더라이팅 측면에서 상위그룹과 하위그룹간 뚜렷한 효율성 차이가 존재함을 알 수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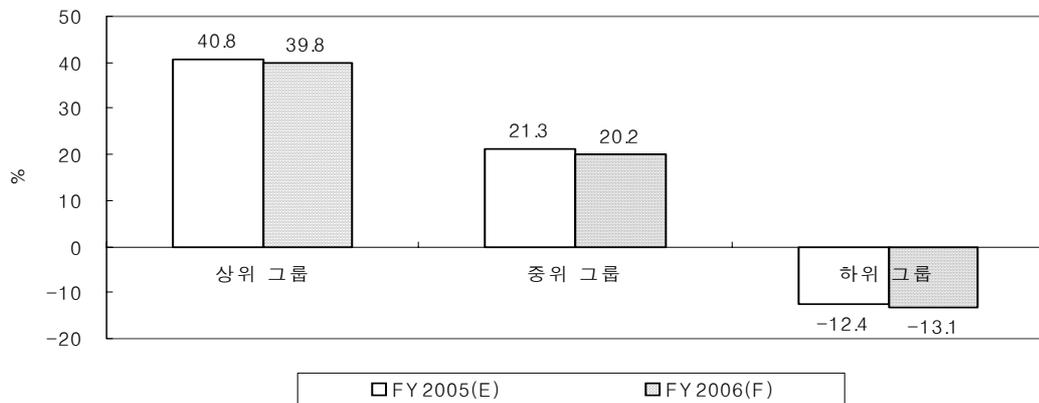
<그림 6> 위험률차익률 전망



#### 4. 유지비 관련 효율성

- 사업비 중 신계약비와 유지비 부문은 경영효율성 비교 지표로서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경영효율성을 나타낼 수 있는 유지비 부문의 이익률을 비교함
  - 위험률차익률과 마찬가지로 유지비차익률도 상위 그룹과 하위그룹간 차이가 매우 큼
  - 이익률이 높은 그룹의 유지비차익률은 39.8%, 중간인 그룹은 20.2%, 낮은 그룹은 -13.1% 수준으로 예상되어 이익률이 낮은 회사는 유지비 부문에서 손실이 예상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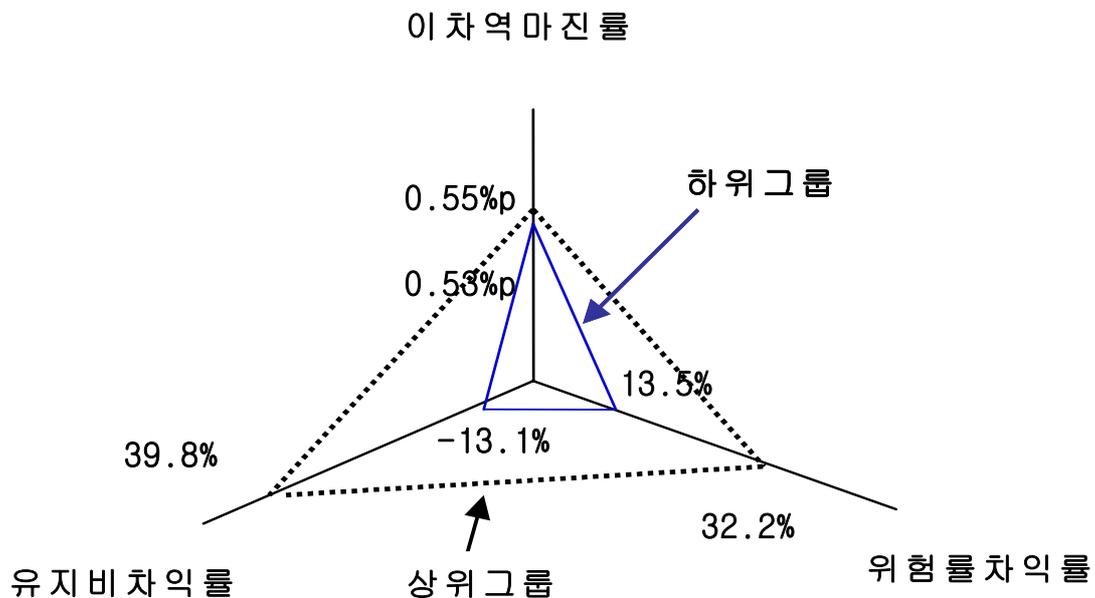
<그림 7> 유지비차익률 전망



## 5. 요약

- 수입보험료 대비 이익률 상위 그룹(5.67%)과 하위 그룹(0.70%)간에는 경영효율성 측면에서 뚜렷한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전망되는데, 주로 위험률차익률과 유지비차익률 부문에서 두드러진 차이가 발생함
- 이익률이 높은 그룹과 이익률이 낮은 그룹간 이차역마진률의 차이는 매우 미미한 수준임(0.55%p vs. 0.53%p)
- 반면, 위험률차익률(32.2% vs. 13.5%)과 유지비차익률(39.8% vs. -13.1%) 차이가 높아 상대적으로 상품설계, 언더라이팅, 지급심사, 사업비 관리 측면에서 상위 그룹의 경영효율성이 양호한 것으로 예상됨

<그림 8> 경영효율성 전망 비교



## IV. 시사점

---

- 2006년에는 내수를 중심으로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고 금리 수준도 5%대를 기록하는 등 생명보험 산업의 전반적인 경영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됨
  - 그러나, 저축성보험의 집중적인 만기도래로 인해 자산 규모가 일시에 크게 감소하기 때문에 만기도래 보험금의 신규 예치 등 유동성리스크 관리에 유의해야 할 것임
  - 또한, 변액보험이 단기간 내에 급격하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불완전판매 등 잠재된 운영리스크 관리에 주력해야 할 것임
  
- 이익률 기준 상위·중간·하위 그룹의 경영효율성을 비교한 결과, 상위 그룹과 하위 그룹간 이차역마진 부문의 차이는 거의 없으나, 위험률차익률 및 유지비차익률간 차이가 클 것으로 예상됨
  - 위험률차익률과 유지비차익률은 보험영업 부문의 경영효율성 제고를 통해 일정 정도 통제가 가능하므로 하위 그룹에 속한 회사의 경우 상품개발, 언더라이팅 능력 제고 및 효율적인 비용관리 노력이 요구됨
  
- 우리나라 생보사의 이익률은 2.53% 수준으로 예상되어 이익률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됨
  - 또한, 감독체제의 중심이 리스크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그 핵심 부문인 리스크평가제도(RAAS) 및 위험기준자본금제도(RBC)의 추진에 대비해야 할 것임

- 보유한 리스크에 상응하는 요구자본 충족을 위해서는 증자 등 자본확충 노력과 동시에 당기순익 규모 확대를 위한 중·장기 전략이 동시에 강구되어야 할 것임
  - 향후 예정신계약비 및 예정수금비 부문에서의 추가적인 이익 확보는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중·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자율차손 축소, 유지비차익 및 위험률차익 확보에 주력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
  - 특히 위험률차익률의 경우 가장 양호한 회사와 가장 불량한 회사간 50%p 정도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개선의 여지도 가장 클 것으로 판단됨

## <부록 1> 손익 민감도 분석

### 가. 투자수익률 하락

- 시중금리의 급격한 하락으로 인해 보험사의 투자수익률이 1%p 하락할 경우 당기순익이 1조 4천억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
  - 특히 고금리 확정형 책임준비금 비중이 높은 대형사의 경우 당기순익이 약 1조원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예상됨
  - 외국사의 경우는 2천여억원 정도 당기순익이 감소하지만, 지급여력비율은 34%p나 낮아질 것으로 예상됨
  - 수입보험료 대비 이익률은 0.30% 수준으로 낮아지고, 지급여력비율도 20%p 낮아진 203%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됨

<표 1> 투자수익률 1%p 하락시 손익 변동(FY2006)

(단위: 억원, %, %p)

	당기순익	손익 증감	지급여력비율	비율 증감
대형3사	-667	-9,952	213.4	-19.6
중소형사	948	-1,750	188.3	-22.5
외국사	1,614	-2,121	155.4	-33.9
전사	1,885	-13,822	202.7	-20.3

### 나. 사업비율 상승

- 신계약비, 유지비 등의 지출이 증가하여 전체적인 사업비 집행률이 기본 가정보다 10% 상승할 경우 당기순익이 8천억원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됨
  - 그 결과, 수입보험료 대비 이익률은 1.27% 수준으로 낮아

지고, 지급여력비율도 16%p 낮아진 207% 수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

#### 다. 보험금지급률 상승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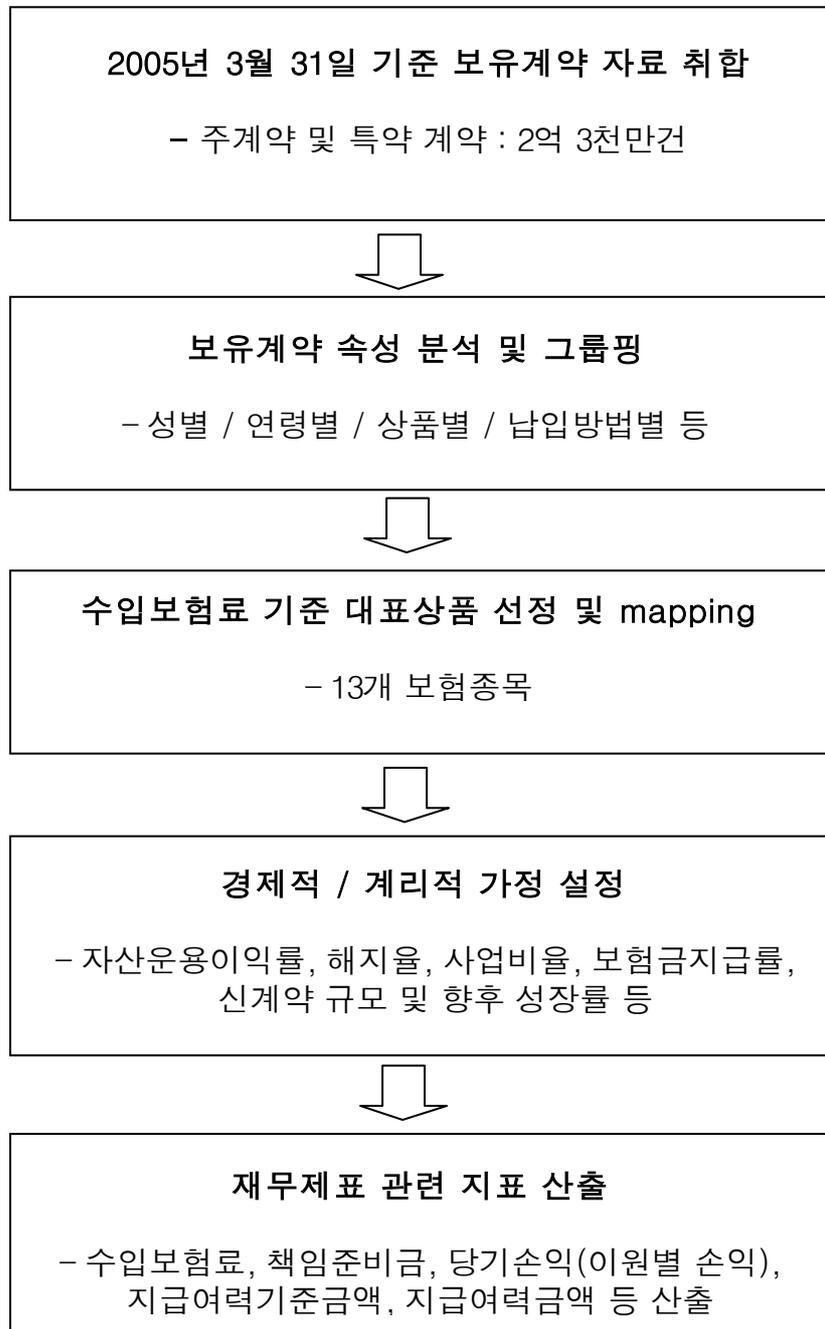
- 질병 진단, 입원, 수술 등 생존급부 및 사망급부 부문에서의 경영효율 악화로 인해 기본 가정보다 보험금지급률이 10% 상승할 경우 당기순익이 5천억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
- 수입보험료 대비 이익률은 1.78% 수준으로 낮아지고, 지급여력비율도 15%p 낮아진 208% 수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

<표 2> 손익 민감도 분석(FY2006)

(단위: 억원, %, %p)

민감도 분석내용	당기순익 변동		수입보험료 대비 이익률		지급여력 비율	
	금 액	변동 금액	이익률	변동율	비율	변동율
기본가정	15,707	-	2.53	-	223.0	-
투자수익률 1%p 하락	1,885	-13,822	0.30	-2.23	202.7	-20.3
사업비율 10% 상승	7,872	-7,835	1.27	-1.26	207.4	-15.5
보험금 지급률 10% 증가	10,937	-4,770	1.78	-0.75	208.3	-14.7

## <부록 2> 손익전망 분석 흐름도(flow chart)



### <부록 3> 손익 전망 주요 가정

신계약물량 및 성장률

- o FY2005의 경우 2005. 4~9월 보험종목별·납입방법별 월평균 초회보험료 실적치 사용
- o FY2006 신계약 물량에 대해서는 회사별로 차등 적용

자산운용이익률

- o 보유계약과 신계약에 대응하는 자산별 포트폴리오에 대한 이익률을 각각 산출하여 합산 적용함
- o FY2005 : 5.58%
- o FY2006 : 5.47%

예정대비 실제사업비율(재원식 사업비 기준)

구분	개인				단체	
	생존보험	생사혼합	사망보험		저축성	보장성
			순수보장	기타보장		
신계약비	96.6%	108.2%	84.9%	84.6%	73.7%	100.3%
유지비	71.7%					
수금비	35.9%					
예금보험료	(수입보험료+해약식준비금)×0.5×0.4%					
법인세	27.5%					

□ 해지율

- 보험종목별·경과년도별(1차년도~30차년도) 최근 3개년 계약유지율 자료를 활용하여 산출함
- 연금보험, 생사혼합보험 등 저축성보험에 대해서는 일시납과 비일시납 계약에 대해 달리 적용함

구분	개인						단체	
	생존보험		생사혼합보험		사망보험		저축	보장
	비일시납	일시납	비일시납	일시납	종신	건강		
1차년도	24.0%	4.9%	25.7%	6.0%	17.3%	16.6%	25.7%	15.2%
10차년도	9.9%	5.4%	8.4%	6.8%	6.7%	6.5%	8.4%	6.7%
20차년도	6.0%	5.4%	4.0%	6.8%	3.7%	3.7%	4.0%	3.7%

□ 보험금지급률

- 보험종목별·경과년도별(1차년도~30차년도) 위험보험료 대비 지급보험금 비율을 산출하여 활용함
- 21차년도 이후에는 20차년도의 지급률과 동일하다고 가정함

구분	개인					단체	
	생존보험	생사혼합보험	사망보험			보장	저축
			종신	건강	기타		
1차년도	36.5%	45.3%	54.0%	60.2%	58.8%	58.8%	45.3%
10차년도	76.2%	72.3%	82.8%	93.9%	90.4%	90.4%	72.3%
20차년도	89.8%	84.5%	89.8%	100.3%	95.0%	95.0%	84.5%

## CEO Report 2006-3

### 생보사 FY2006 손익 전망 및 분석

---

발행일	2006년 2월 일
발행인	김 창 수
편집인	박 상 래
발행처	보험개발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-4
인쇄소	(주)유성사 대표전화 2268 - 0676

---

본 자료에 실린 내용에 대한 문의는 보험개발원 생명보험본부  
리스크관리팀(☎368-4165)으로 하여 주십시오.